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 (14)
주제: 일본 인문학을 통해 본 동아시아 세계론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제 14 회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에서는 와세다대학 문학학술원의 이성시(李成市) 교수를 초청해 「일본 인문학을 통해 본 동아시아 세계론」이라는 주제로 해외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

이성시 교수는 먼저 이번 강연의 핵심을 설명했다. 「동아시아 세계론」은 세계사 속의 일본 역사의 위치를 밝히기 위해 1970 년대 도쿄대학의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교수가 제시한 역사론이다. 전쟁 후 일본 역사 학계에서는 이 이론을 「기초 이론 (Grand theory) 」으로 여겼고, 현재 일본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술 논문에서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당시 일본, 한국,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의 비판을 받았다. 비록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적어도 일본 역사 학계에서 사용되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개념은 「동아시아 세계론」이론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이 이론이 제안된 지 벌써 반 세기가 지났다. 이번 강연은 「동아시아 세계론」과 이것의 기초 이론 배경인 「책봉체제론」을 비판하고 이 이론의 범위와 실효성을 입증하는 데에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이성시 교수는 먼저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일본 역사 교육과 역사 학계에서는 그 범위를 중국, 북한, 일본, 베트남 지역이라고 보고 있으며, 신문 매체에서는 아세안(ASEAN) 10 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3 개국을 그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신흥공업경제지역(N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을 계기로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 지역들의 공통분모인 한자문화권, 유교문화권, 중화문화권은 더 나아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묶어 설명될 수 있다.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가 제시한 동아시아 문화권의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한자(소통 수단), ②유교(정치 이념, 가족제도를 규제하는 이념제도), ③불교(중국화된 불교, 대승불교), ④법령(법률체제). 위의 4 가지 지표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을 문화권으로 설정할 수 있다. 중국의 황제, 군신관계의 책봉체제(정치권) 및 위에서 언급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국가를 「동아시아 세계＝지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동아시아 세계론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적 사고

이성시 교수는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가 제시한 「동아시아 세계론」에 대한 비판을 크게 2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점: 이 이론이 정치권과 경제권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 본인도 이 영역을 고정적 영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론의 지리학적 범위의 혼동과 모호성 문제가 발생했다.

②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의 이론에서 파생된 문제점: 이 이론은 단지 책봉시대(6-8 세기)와 지역(중국과 동방국가)에 국한된 검증과 이론화일 뿐, 기타 지역에 관해 그 적합성을 검증할 수 없다.

동아시아 세계론의 문제 의식: 동아시아 문화권=한자권 형성이 왜 문제인가?

그렇다면 동아시아 문화권과 동아시아 세계는 어떤 문제 의식에 의해, 우리가 이를 문제라고 보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규범의 모호성을 없애고, 이 문화권의 형성 문제를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의 세계사 관점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는 1950 년대 교과서를 공동 집필한 역사학자 우에하라 센로쿠(上原專祿)의 영향을 받았다. 우에하라 센로쿠 교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 유럽적 시각의 통제와 종속구조 전환을 토대로 세계사관을 구축했다.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는 우에하라 센로쿠 교수의 이론을 적용하여 세계가 지닌 여러 양상을 탐구했다.

동아시아 이론의 과제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가 제안한 동아시아 세계론은 중국, 북한, 베트남, 일본이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세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니시지마 사다오 교수의 세계론이 직면한 과제는 한자문화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 연구자인 이성시 교수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목표: 동아시아 세계론의 문제점 극복

동아시아 세계론은 1950-60 년대 일본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2020 년대 현대에는 전과 동일한 문제점을 들며 동아시아 세계론을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즉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의 의의를 현시점에 맞추어 생각해 보고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없이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대해 논하기 어렵다. 한 국가의 관점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 더 넓은 지역적 관점으로 관찰해 보면 보다 쉽게 문제의 공통점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성시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번역: 류혜랑(柳慧朗)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